

부록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2학년도 시준4 제4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1~4] 현대시

(가) 「장수산 1」 정지용

작품 평가

고풍스러운 시어와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 낸 효과와 작품 전반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배경의 이미지를 주제와 연관 지어 읽자. 이 시의 창작 시기가 1939년경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 일제의 폭압이 극으로 치닫던 시기다.

토막 1 눈이 많이 내린 깊은 산속

벌목정정(伐木丁丁), 나무를 베는 소리가 '정정'함. '정정'은 '찌렁찌렁'과 비슷한 의성어(의성어)이었겠지. 아람도리(=아름드리) 큰 솔이 베혀짐(=베어짐) 극도 하이.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 극도 하이.

→ 나무를 베면 그 소리가 찌렁찌렁 울린다는 말이 있거니와, 아름드리 큰 소나무가 베일 만도 하이. [그 소리에] 골짜기가 울어 메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 만도 하이.

▶ 화자는 '벌목정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아마도 깊은 산속 골짜기에 눈이 많이 내렸나 보다. 화자는 눈이 많이 내리면 아름드리 큰 소나무도 눈 무게를 못 이기고 쓰러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소나무가 넘어지는 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로 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다.

▶ 참고! 소나무는 가지에 쌓인 눈 무게에 흔히 부러지고 넘어진다. 이를 표현하는 한자어 '설해목(雪害木)'이 있을 정도다.

▶ 굳이 '눈'을 연결 지지 않고, 아름드리 소나무를 벌목하면 메아리가 찌렁찌렁 돌아옴 만큼 깊고 고요한 산이라는 화자의 느낌을 나타낸 것으로 읽을 수도 있겠다.

▶ 어느 쪽으로 읽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화자는 마냥 깊은 산속의 고요함에 젖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와 대비되는 소리를 상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자의 내면이 한가하고 평화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뭔가 긴장감을 띠고 있는 상태라는 것 정도는 눈치를 채고 읽어 나가자.

토막 2 눈 덮인 깊은 산에 비치는 달빛

다람쥐도 좇지 않고 뽕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청각 이미지와 촉각 이미지의 결합, 청각의 촉각화] 눈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너[→ 골짜기에 내린 눈이 달빛에 반사된 모습을 부각함]!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 다람쥐도 다니지 않고 뽕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의 고요함이 차라리 뼈를 저리는 듯한 느낌인데 눈과 밤이 중이보다 희구내 달도 보름이 되기를 기다려 밝게 빛나는 뜻은 한밤중에 이 골짜기를 걸어 보라는 것이냐?

▶ 눈 덮인 깊은 산속의 탈속적인 풍경을 감각적 이미지로 그려 낸 부분이다. 화자는 상상한다. 달이 [여러 날 동안 뜨지 않다가] 보름인 오늘을 기다려서야 뜬 것은, 나로 하여금 한밤에 이 골짜기로 걸음을 옮기게 하기 위함이었을까? 또는 달 자신이 한밤중에 이 눈 덮인 골짜기로 걸음을 옮기고 싶어서인가? 어느 쪽이든 눈에 비치는 밤 달빛에 대한 경탄이겠다.

토막 3 스님의 마음씨

웃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조촐히, 말쑥하고 얹전하게)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좇는다[→ 스님의 초탈한 마음가짐을 속으로 새기는 화자의 모습]?

→ 산 위의 절에 사는 스님이 여섯 판의 내기에서 모두 지고도 웃으면서 절로

돌아간 뒤, 깨끗하게 나이 든 그 스님이 남긴 흔적을 좇는 것인가?

▶ 토막2와 토막3에서 화자의 태도가 의문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하자. 이 의문문은, 보름달이 밝게 뜬 뜻을 좇아 산속을 걷는 일과 스님의 초연한 태도를 좇는 일에 대해 화자가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즉 탈속적인 풍경을 향유하거나 수행자의 초연한 태도를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이 취해야 할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토막 4 화자의 심정과 결의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올연(兀然)히(=홀로 우뚝하게)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長壽山) 속 겨울 한밤내—

→ [마음속]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더욱 심하게 흔들리고 있으니, 오오 견디려다. 냉정을 잃지 말고 홀로 우뚝하게, 슬픔이나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밤 내내 [견디려다].

▶ '시름이 흔들린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고요함 속에서 시름과 고뇌에 흔들리는 것은 화자의 내면일 것이다. 그리고 화자는 곧바로 다짐한다. 이 겨우 내 곳곳에 견디면서 마음에 중심을 잡으려라고……. 이 시가 일제의 폭압이 가혹해지는 상황에서 쓰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시름은 시인으로서의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었을, 시대 상황에 대한 고뇌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정리

토막1에서 암시된 화자 내면의 긴장감이 토막4에서 '시름'으로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자. 토막2와 토막3에서 화자는 탈속적인 풍경과 그 속에서 만난 초연한 인물에게서 무언가를 찾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마침내 토막4에서 시름을 '차고 올연히' 견뎌야 하리라고 다짐하고 있다. 화자 내면의 시름을 시대 현실에 대한 고뇌라고 해석한다면 시의 의미는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작품은 일제 강점하의 절망적 현실을 견뎌 낼 수 있는 삶의 자세를 탈속적이고 초연한 경지로부터 모색하는 시인의 태도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주제

탈속적인 풍경 속에서 느끼는 고뇌와 다짐

단백질 접힘과 광우병

지문 평가

체내에서 단백질이 생성되는 과정과 비정상 단백질을 처리하는 과정 등 전반적으로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해하고 과정을 따라가며 읽자. 첫 문단에 던져진 핵심 화제가 중간 내용들을 거쳐 마지막 문단에서 정리되고 있으니, 구조를 생각하며 읽어 나갈 필요가 있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생리학 - 광우병

광우병, 전염병, 프라이온, 단백질, 변형 프라이온, 아미노산, 단백질 접힘, 결사슬, 소수성, 친수성, 분자 사페론, 사페론, 열충격 전사 인자(HSF), CK2 단백질, 유비퀴틴 연결 효소, 유비퀴틴 활성화 효소, 유비퀴틴, 프로테아솜

문단 1 변형 프라이온에서 기인하는 광우병

- 1) **광우병**은 소의 뇌에 구멍이 뚫리는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광우병에 걸린 소를 섭취한 인간에게도 유사한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
 - ▶ 광우병이 어떤 병증을 지니고 있는지, 또한 인간에게 어떻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 2) 자기 증식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 발병하고 전염되는 보통의 **전염병**과 달리, ...
 - ▶ 일반적인 전염병의 특징이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자기 증식하고 사람을 감염시켜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게 일반적이나.....
- 3) 광우병은 포유류에서 발견되는 **프라이온**이라 불리는 **단백질** 중에서 변형된 것에 기인한다. 단백질은 체내에서 생성될 뿐 증식하지 못하는데, ...
 - ▶ 광우병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니라 '변형된 단백질'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이다.
 - ▶ 2를 다시 보면, 바이러스나 세균은 체내에서 증식한다. 하지만 단백질은 생성될 뿐 스스로 증식하지 못한다. 결국 '변형 프라이온'이 어떻게 체내에서 그 수를 늘릴 수 있는지가 핵심이겠다.
- 4) **정상 프라이온**과 입체 구조만 다른 **변형 프라이온**은 인접해 있는 정상 프라이온을 자기와 같은 구조로 변형하는 방식으로 전염시킨다.
 - ▶ 변형 프라이온은 정상 프라이온과 입체 구조만 다르다. 다시 말해 정상 프라이온의 입체 구조가 바뀌면 변형 프라이온이 된다는 얘기다. 변형 프라이온은 이를 이용해 인접한 정상 프라이온의 구조를 자기와 같게 만들어 체내에 변형 프라이온 수를 늘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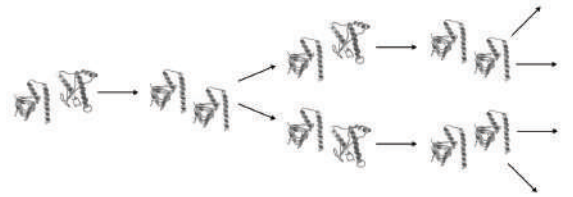


정상 프라이온



변형 프라이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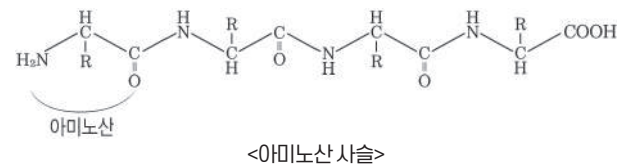
▶ 1개의 변형 프라이온이 인접한 정상 프라이온을 변형시키면 2개의 변형 프라이온이 되고, 이들이 각각 또 다른 정상 프라이온을 변형시키면 4개의 변형 프라이온이 되고..... 다음과 같은 연쇄 효과를 상상하면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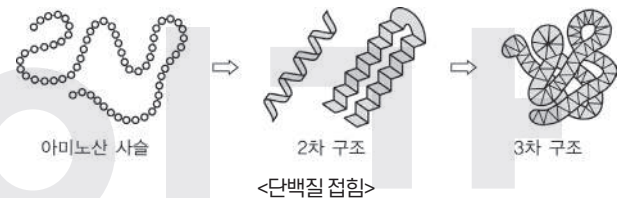
문단 2 단백질의 생성 과정과 입체 구조

- 1) 단백질은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진 **사슬**이 **단백질 접힘** 과정을 거쳐 생성된 것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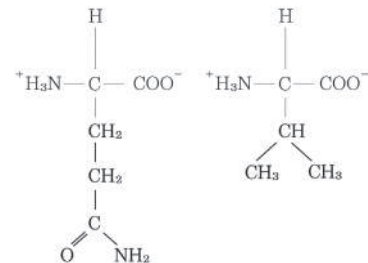
▶ 중요한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 단백질을 이루는 것은 아미노산이란. 이들은 결합하여 다음의 예시와 같은 사슬을 이루게 되는데.....



▶ 단백질은 이러한 사슬이 '접혀서' 만들어진다.



- 2) 그 고유한 입체 구조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을 한다.
 - ▶ 그리고 어떻게 '접히느냐'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고 그 '기능'이 결정된다. 즉 '정상 프라이온' 역시 제대로 접힌 상황에서는 그 구조에 따라 나름의 기능을 수행했을 거다.
- 3) 아미노산 사슬에서 개별 아미노산은 **그에 붙어 있는 원자들의 덩어리인 결사슬**이
 - ▶ '결사슬'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말한다. 하나의 아미노산마다 하나의 결사슬을 갖는다는 점을 잊지 말자.



- 4) 수소 원자와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 물과의 친화력이 약한 성질인 **소수성**을 띠며, 산소 원자까지 포함한 경우에 극성을 지녀서 물과의 친화력이 강한 성질인 **친수성**을 띤다.

▶ 결사슬은 수소(H), 탄소(C), 산소(O) 원자 등으로 구성되는데 산소 원자의 포함 여부에 따라 소수성을 띠는지, 친수성을 띠는지 결정된다. 즉 3)의 예시 그림에서 왼쪽은 친수성을, 오른쪽은 소수성을 띤다.

<결사슬의 구성>

산소 원자 × ⇨ 소수성 아미노산
산소 원자 ○ ⇨ 친수성 아미노산

5) 포유류의 체내 환경은 대체로 물이 많아서 **정상 단백질**은 소수성 아미노산이 주로 안쪽을 향하도록 접히고, 친수성 아미노산이 주로 바깥쪽을 향하도록 접히면서 입체 구조가 형성된다.

▶ 아미노산 사슬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접히기 때문에 '친수성 아미노산'이 주로 물과 접하는 바깥쪽을 향하고 반대로 '소수성 아미노산'은 주로 안쪽을 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과 아미노산은 친수성인지 소수성인지에 따라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반응할 테니까 말이다.

6) 그런데 변형 프라이온처럼 잘못 접혀서 형성된 **비정상 단백질**은 소수성 아미노산이 바깥쪽에 위치하는 구조를 띠어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면서 응집하여 세포에 상처를 입히는 등 **각종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 잘못 접힌 단백질은 달리 비정상성이 아니다. 아직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변형 프라이온'은 소수성 아미노산이 주로 바깥쪽을 향하도록 접힌다. 생각해 보자. 물과 소수성 아미노산이 접해 있는 상황은 마치 자석의 같은 극끼리 맞대어 있는 상태와 같을 테니 불안정한 상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 비정상 단백질들이 잘 응집하는 것은 바깥쪽에 노출되어 있는 소수성 아미노산들이 현재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로 붙으려는 경향 때문이다.

7) 젊고 건강한 체내에서는 세포 내부의 **샤페론**이나 **프로테아솜**에 의해 비정상 단백질들이 처리되어 이들 질환이 방지된다.

▶ 건강한 체내에서 비정상 단백질을 처리하는 수단을 언급하고 있다.

❶ **맥락 짚기** 이어지는 문단에서는 샤페론과 프로테아솜이 각각 비정상 단백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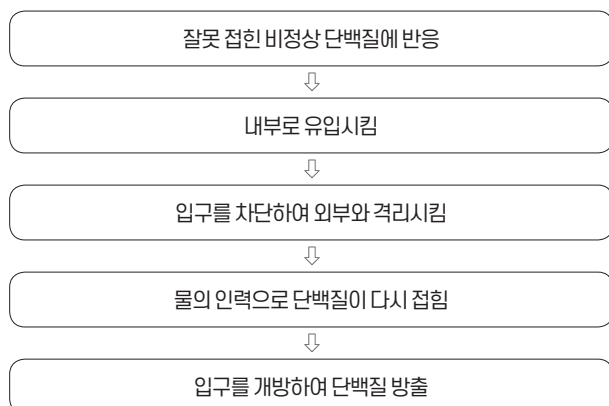
문단 3 체내 비정상 단백질 처리 작용 ① - 샤페론

1) 단백질 접힘을 돕는 단백질 복합체인 **분자 샤페론** 중의 하나인 **샤페론**은 항아리 모양을 띤다.

▶ '샤페론'은 분자 샤페론의 한 종류이다. 항아리 모양을 상상해 보고 어떤 방식으로 단백질 접힘을 돕는지 살펴보자.

2) 세포 내에서 샤페론은 잘못 접힌 단백질에만 반응하여 이를 항아리 안으로 유입시키고 입구를 닫아 외부와 격리한다. 정상적인 접힘을 방해하는 환경이 형성되기 쉬운 외부와 달리, 샤페론의 내부는 물이 많아서 강한 친수성을 띤다. 그 때문에 비정상 단백질은 안쪽의 친수성 아미노산이 극성을 띤 물의 인력에 이끌려 바깥쪽에 놓이려 함에 따라 잘못 접힌 상태가 풀리고 다시 접힌다. 이후 입구가 열리고 단백질이 빠져나오는데, 다시 제대로 접히는 것에 실패하여 비정상 단백질 상태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다.

▶ 샤페론의 작용 과정이다. 정리하자.



❶ **주목** 이때 '비정상 단백질'이 샤페론 안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항상 제대로 접힌 '정상 단백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자.

3) 분자 샤페론은 활성 상태의 **열충격 전사 인자(HSF)**에 의해 발현되는 양이 늘어난다. HSF는 비활성 상태에 있다가 고온이나 독성에 노출되는 등 세포 스트레스가 야기되어 정상적인 접힘이 방해받는 상황에서 활성 상태가 되는 단백질이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CK2 단백질**에 의해 HSF가 다시 비활성 상태가 되는 방식으로, 발현되는 분자 샤페론의 양이 조절된다.

❶ **주목** '단백질 접힘이 방해받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다만 아직까지는 문단에서 언급된 광우병의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광우병'은 '섭취'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이었으니 말이다.

▶ 'HSF'에 의해 분자 샤페론의 양이 조절되는 과정이다. 마치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듯이 비활성 상태(OFF)에서 활성 상태(ON)가 되면 '분자 샤페론'의 양이 늘어난다. 정리하자.



문단 4 체내 비정상 단백질 처리 작용 ② - 유비퀴틴과 프로테아솜

1) 한편 포유류의 세포에는 구조가 각기 다른 비정상 단백질들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약 300종 이상의 **유비퀴틴 연결 효소**가 있다. 어떤 비정상 단백질에 유비퀴틴 연결 효소가 결합되면, 인근의 **유비퀴틴 활성화 효소**가 유비퀴틴을 끌어와서 비정상 단백질의 친수성 아미노산에 부착시킨다. 유비퀴틴은 표지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❶ **맥락 짚기** 체내에서 비정상 단백질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비정상 단백질을 찾아서 표지를 해 두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표지해 둔 비정상 단백질을 제거하는 단계이다.

▶ 1)은 그 첫 번째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유비퀴틴은 표지 역할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비정상 단백질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라는 의미다. '유비퀴틴 연결 효소 - 유비퀴틴 활성화 효소 - 유비퀴틴'이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여, 비정상 단백질에 유비퀴틴이라는 표지판을 붙이는 단계인 셈이다.

2) 단백질 분해 효소들의 복합체로 이루어진 **프로테아솜**은 유비퀴틴이 부착된 단백질을 발견하면 해당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여 제거한다.

▶ 유비퀴틴이 부착된 단백질은 프로테아솜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즉 '프로테아솜'은 분해되어야 할 비정상 단백질을 표지 없이 스스로 식별할 능력은 없는 셈이다. 그래서 '유비퀴틴'을 활용하는 것이겠다.

유비쿼터 연결 효소	비정상 단백질에 결합
+	
유비쿼터 활성화 효소	'유비쿼터'를 끌어와 비정상 단백질의 친수성 아미노산에 부착
↓	
프로테아솜	유비쿼터가 부착된 비정상 단백질을 분해

❶ **주목** 결국 '사페로닌'은 비정상 단백질을 정상 단백질로 바꾸고, '프로테아솜'은 비정상 단백질을 아예 분해해서 제거하는 셈이다.

문단 5 인간에게 광우병이 발병하는 원인

1) 비정상 단백질이 사페로닌과 프로테아솜 중 어느 쪽에 의해 처리될지의 여부는 확률적으로 결정된다. 다만 노화나 각종 병인으로 인해 비정상 단백질이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

➡ 비정상 단백질이 사페로닌과 프로테아솜 중 어느 쪽의 선택을 받아 처리될지는 확률에 의존한다. 유비쿼터 연결 효소가 먼저 발견하면 프로테아솜에 의해 분해될 테고…… 사페로닌이 먼저 발견하면 다시 접힐 수 있을 테고……

➡ 다만 이러한 비정상 단백질 처리 시스템이 항상 잘 작동하는 건 아니다. 즉 문단2-7에서 언급했듯이 '젊고 건강한 체내'에서만 제대로 기능한다는 얘기다.

2) 소의 변형 프라이온이 소화 기관에서 분해되지 않고 단백질 형태로 흡수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처리 작용이 작동하지 않으면 변형 프라이온은 인간의 체내에 존재하는 정상 프라이온들의 접힘을 풀어 변형을 가져온다.

❶ **맥락 짚기** 문단에서 던진 핵심 화제인 광우병으로 다시 돌아왔다.

➡ 단백질은 원래 소화 기관에서 분해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백질 형태로 흡수된다면 그것이 마치 우리 몸에서 잘못 접힌 '변형 프라이온'처럼 기능하여 '정상 프라이온'의 변형을 초래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원리는 이미 문단1-4에서 살펴봤다.

3) 변형 프라이온들끼리는 잘 응집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들은 반점 형태의 조직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뇌에 염증을 일으켜 구멍을 뚫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렇게 늘어난 변형 프라이온은 문단2-6에서처럼 자기들끼리 응집하여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발병하는 광우병은 '소의 변형 프라이온'이 섭취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인간의 정상 프라이온'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발병하는 것이겠다.

참고 어떻게 소의 변형 프라이온이 인간의 정상 프라이온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할 수도 있겠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종에 속하는데 말이다. 이는 단백질의 기능이 오히려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유류 중에서 소의 프라이온 입체 구조는 인간의 프라이온 입체 구조와 가장 흡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의 변형 프라이온'은 마치 '소의 정상 프라이온'을 변형시키듯이, 자연스럽게 '인간의 정상 프라이온'도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이다.

[15~20] 사회-예술 통합

후기 자본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시뮬라크르

지문 평가

'시뮬라크르'라는 까다로운 개념을 사회학과 현대 예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하는 통합 지문이다. 개념 자체는 난해한 데 비해 지문 자체는 친절한 편이니, 이번 기회에 내용을 단단히 해 둔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읽어 나가자. 이렇게 한 번쯤 정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주제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가) 사회 - 사회학 - 보드리야르, 부르디외

(나) 예술 - 현대 예술 - 포스트모더니즘

소비, 부르디외, 아비투스, 보드리야르, 차이의 산업적 생산, 기호, 시뮬라크르, 과잉 현실, 모더니즘, 그린버그, 순수 추상 회화, 포스트모더니즘, 앤디 워홀, '210개의 콜라병', 차이의 놀이, 과잉 의미 상태

(가)문단 1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비

1) 자본주의 초기만 하더라도 소비란 생산의 부차적인 산물에 불과한 것이고, 무엇을 소비할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 '소비'라는 화제에 대한 자본주의 초기의 인식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 같지만……

2) 그러나 20세기 중후반 자본주의가 급격히 확장되면서 다양한 소비 양상이 드러나자 소비를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 이후에는 소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달라졌다. 즉 소비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며, 자본주의적 사회 구조가 각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❶ **맥락 짚기** 관련된 관점 요소가 제시될 것임을 안내하고 있으니, 이어질 흐름을 예측하며 독해를 이어 나가자.

(가)문단 2 부르디외가 주목한 아비투스

1) 현대인의 소비 양상은 개인적 측면이 아니라 현실의 사회 계층적 차원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본 부르디외는, 개인들은 합리적 소비를 한다기보다[→ 자본주의 초기의 인식] 자신이 속한 계층의 '아비투스'에 따라 소비 행위를 한다고 보았다.

➡ 문단1-2에서 정리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부르디외'의 관점이다. 부르디외는 특히 사회적 '계층'에 주목했는데, 이러한 계층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아비투스'를 제시했다.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하겠다.

2) 아비투스란 각 계층이 향유하는 문화나 관습에 의해 체화된 것으로, 해당 계층에 속한 이들의 행위를 이끄는 인식의 틀을 말한다. 일상의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문화적 행위에 이르기까지 아비투스는 개인의 인식 체계에 전면적으로 작용하므로, 특정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소비 패턴을 보이게 된다.

- ▶ '아비투스'의 정의다. 이는 계층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인식의 틀로서, 소비를 비롯한 각종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다.
- ▶ 즉 각각의 계층은 고유한 문화나 관습을 향유하고, 이로 인해 고유한 아비투스 형성되며, 이는 다시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고 흐름을 정리할 수 있다.

계층별로 문화나 관습 향유
 ⇨ 계층별 아비투스 형성
 ⇨ 소비 패턴의 차이 발생

3) 그래서 다른 계층에게는 낭비적 소비로 보이는 것도 상류 계층에서는 집단의 정체성을 보여 주면서 자신의 지위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소비로 인식된다.

- ▶ 상류 계층에서 아비투스가 소비 패턴에 작용하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소비 패턴은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다른 계층이 보기에는 이상한 소비가 특정 계층 내부에서는 자연스러운 소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가)문단 3 보드리야르가 주목한 기호 가치

1) 한편 보드리야르는 명예나 과시를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던 낭비적 소비가 후기 자본주의에 이르러 '차이의 산업적 생산'에 의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보았다.

- ▶ 부르디외에 이어 '보드리야르'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역시 후기 자본주의라는 사회 구조와 소비를 연결하고 있으므로, 문단-2)에서 소개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차이의 산업적 생산'이라는 개념이 제시되고 있으니, 그 의미를 좀 더 파고들어 보자.

- ▶ **맥락 짚기** 부르디외의 관점과 대등하게 소개되고 있는 또 다른 관점이다. 이 관점 역시 소비를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려는 시도로 보면 되겠다.

2)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가 없음에도 산업적으로 조금씩 다른 상품을 생산[→ 차이의 산업적 생산]해냄으로써 그 미세한 차이에 의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호(記號)로서의 가치가 생기고, 현대인들은 결국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를 소비한다는 것이다.

- ▶ **주목**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니 찬찬히 집중하자. 이때 핵심이 되는 '기호'는 상품 자체의 사용 가치 및 교환 가치와는 무관한 가치라는 점에 주목하자.

- ▶ '차이의 산업적 생산'이 의미하는 내용부터 짚어 보자. 이는 조금씩 다른 상품을 산업적으로, 바꿔 말해 공장 등의 산업 체계에서 인위적으로 생산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시장에는 별 차이가 없는 상품들이 넘쳐 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 소비자들은 '기호' 가치에 따라 상품을 구매한다.

- ▶ 예컨대 머리카락을 염색하는 약은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다양한 색깔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지만, 후기 자본주의에서는 아주 미세하게 다른 색깔의 염색약을 출시하여 마치 그 각각의 색깔이 소비자들의 각기 다른 욕구를 충족시켜 줄 듯이 광고한다. 이 경우에 소비자들은 염색약이 만들어 낸 상징적 가치, 즉 기호적 가치를 소비하게 된다.

3) 그런데 현대인의 개성을 다양하게 충족시켜 줄 것처럼 보이는 기호 가치는 실상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소멸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서로를 구별 짓는 본질적인 차이들은 점차 사라지고, 개인들은 산업적으로 생산된 기호의 차이에 의해 서열화된다는 것이다.

- ▶ 기호 가치에 따른 소비의 폐단이다. 약간씩 다른 상품의 기호적 가치를 소비하는 것은 그 기호의 차이에 의해 인간이 새롭게 구분 지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 과정에서 개인들의 본질적인 속성, 즉 진짜 개성은 오히려 잠식된다. 즉, 소비한 상품의 기호 가치가 개인의 가치까지 규정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4) 그래서 보드리야르는 후기 자본주의에서의 인간은 소비 욕구만 느낄 뿐 그 무엇도 스스로 꿈꾸지 않는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 ▶ 보드리야르의 전망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발현하려고 하기 보다는 더 높은 기호 가치의 상품만 소비하려 한다면 이 같은 미래가 펼쳐지고 말 거다.

(가)문단 4 시물라크르와 과잉 현실

1) 보드리야르의 전망에 따르면 기호가 만들어 내는 이미지는 현실에 없는데도 현실을 모방한 듯이 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원본 없는 복사본인 '시물라크르'에 해당하며, ……

- ▶ '시물라크르'는 보드리야르가 제시한 중요 개념으로서, 원본이 없는 복사본을 가리킨다. 보드리야르는 기호가 만들어 낸 이미지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실제 없는 가짜라고 주장한다. 다만 현실을 모방한 듯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혹될 뿐인 것이다.

2) …… 시물라크르들에 의해 점령된 세계는 '과잉 현실'이다. 원본 없는 모사[→ 시물라크르]들만 넘쳐 나는 세계인 과잉 현실에서 인간은 고유한 특성을 지닌 상품을 취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호들의 내재적 질서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된다.

- ▶ '과잉 현실'은, 명칭에는 '현실'이라는 말이 붙지만 실제 현실이 아닌 시물라크르가 넘쳐 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가리키겠다. 결국 보드리야르는 차이의 산업적 생산에 의해 현대인이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한다는, 비관적인 사회적 전망을 제시한 거다.

(나)문단 1 모더니즘의 시도와 실패

1) 1940년대에 미술계에서 확산된 모더니즘적 경향은 회화의 본질적 가치를 탐색하고 [다른 예술에 종속되지 않는]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 ▶ 현대 미술에서 '모더니즘'이 지향했던 방향이다. 회화의 '본질적 가치', '자율성'과 같은 키워드를 주목하자. 바꿔 말해 모더니즘은 다른 예술에 종속되지 않는 회화만의 예술 세계를 추구했다.

2) 모더니즘 회화의 이론적 기반을 닦은 그린버그에 따르면 다른 예술과 구별되는 회화만의 본질은 2차원 평면에 있다. 그는 화면에서 형상을 없애고 색, 선, 면의 회화적 요소로만 표현하여 평면성을 강조한 순수 추상 회화를 높이 평가하며, 화면에서 재현을 위한 현실의 환영을 없애면 작품의 자율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보았다.

- ▶ '모더니즘=그린버그'를 하나의 관점 요소로 묶어 주고, 해당 관점이 주목한 '순수 추상 회화'의 키워드들을 '2차원 평면', '색, 선, 면', '평면성' 등으로 정리하자. 예컨대 다음과 같은 작품을 떠올리면 된다. 이 작품의 경우 색, 선, 면 가운데 색과 면이라는 요소를 극단으로 추구한 작품에 해당한다.



마크 로스코, 「무제」(1956)

➡ 이에 따르면 '형상'과 '재현'은 회화가 배제해야 할 요소에 해당한다. 즉 이들은 회화만의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3) 그러나 평면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인해 붓질은 최소화되었고, 이 경향이 극단으로 추구될수록 온전한 회화는 어떠한 작업도 남기지 않은 캔버스 그 자체로서의 사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결론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 순수 추상 회화의 부작용이다. 즉 2)에서 강조한 키워드들을 극단으로 추구하자면, 아예 캔버스에 붓질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모더니즘 회화일 수 있다는 거다.

➡ 그러나 주변의 사물과 다를 바 없는 캔버스 그 자체가 회화 작품이 된다면, 회화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려다가 더 큰 문제에 봉착한 셈이 될 거다.

4) 그래서 비판자들은 모더니즘 회화가 자율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대상을 부정하거나 그로부터 이탈하는 매체로 전락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일각에서는 그러한 부정과 이탈이 역으로 캔버스에서 제거된 환영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결국 재현에서 벗어나려는 모더니즘의 시도는 실패했다고 평가하였다.

➡ 모더니즘에 반대하는 '비판자'들의 관점이다. 키워드 중심으로 대조 지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모더니즘 = 그린버그	비판자들이 본 모더니즘
회화의 본질 추구 형상과 재현 배제 작품의 자율성 확보	부정과 이탈의 매체로 전락 역으로 형상을 상기시킴 작품의 자율성 확보 실패

(나)문단 2 포스트모더니즘 회화의 재현

1) 모더니즘에 반발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이 새로운 예술 사조로 등장하자 그에 발맞춰 다시 재현적 형식을 시도하는 평면 회화들이 등장하였다. 다만 이때의 재현은 전통적 재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반발해 등장한 새로운 사조다. 모더니즘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자. 평면 회화를 제작했다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재현적 형식을 시도했다는 점은 차이점이다.

➡ 단 이때의 재현은 전통적 재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하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였는지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하겠다.

참고 전통적 의미의 재현은 특정한 대상을 상징하고, 이를 모방함으로써 그 형상을 다시 나타내는 것을 가리킨다. 추상 회화와 달리 인물, 정물, 풍경 등을 화폭에 담아내려 한 회화들이 전통적인 재현 회화에 해당한다.

2) 포스트모더니즘 회화에 조예가 깊었던 보드리야르는, 시물라크르 개념을 적용하여 시각적으로는 대상의 재현을 용인하면서도 의미적으로는 원본 대상이 제거되는 회화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❶ **맥락 짚기** 시물라크르는 원본 없는 복사본을 가리키는 개념이다(가)의 문단4-1]. 보드리야르는 이를 사회학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에까지 적용하고 있다.

➡ '보드리야르'의 관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 회화의 재현이 지니는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이때 시각적으로 대상을 재현하는 것은 전통적 재현과 동일하지만, 의미적으로 원본 대상이 제거되는 것은 전통적 재현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 즉 포스트모더니즘 회화는 마치 대상을 재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본 대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원본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시물라크르 개념과의 공통점이다.

3) 앤디 워홀의 작품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 '앤디 워홀'의 작품은, 시물라크르 개념을 적용 가능한 포스트모더니즘 회화의 예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문단에서 확인해 보자.

(나)문단 3 앤디 워홀의 작품에 등장하는 시물라크르

1) 워홀의 작품에는 원본의 복제뿐 아니라, 복제된 것을 다시 복제한 시물라크르들이 등장하곤 한다.

➡ 워홀의 작품에는 원본을 복제한 것도 등장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물라크르의 등장이다. 복제된 것을 다시 복제한 것은 원본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물라크르에 해당한다.

2) 워홀은 슈퍼마켓의 상품이나 대중 스타[→ 원본]를 많이 그렸는데, 그의 작품 『210개의 콜라병』에는 복제된 수많은 콜라병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각 콜라병은 산업적으로 생산된 것과 달리 색감과 형태가 조금씩 달라서, 이러한 시도는 『차이의 놀이』를 벌인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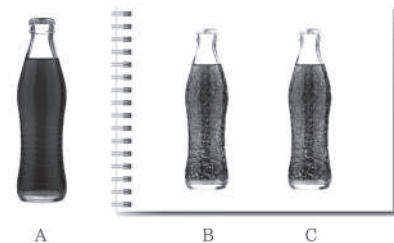
앤디 워홀, 『210개의 콜라병』

➡ 이처럼 조금씩 다른 수많은 콜라병을 보면, 감상은 원본인 콜라병에 주목하기보다는 각 콜라병들 간의 차이에 주목하게 된다. 보드리야르는 이를 '차이의 놀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 물론 (가)의 문단3-2)에서 설명했듯이 대량 생산에 의해 만들어지는 오늘날의 제품들 역시 미세한 차이를 갖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제품들 간의 차이이다. 즉 가사의 콜라병, 나사의 콜라병, 다사의 콜라병 간의 차이인 셈이다. 그러나 워홀의 작품에서는 예를 들어, 가사의 콜라병이[→ 동일한 제품인 만큼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하였을 때에는 규격화되어 차이가 없어야 한다.] 조금씩 차이를 갖고 나열되어 있는 거다.

3) 보드리야르는 이처럼 하나의 시물라크르에 머무르지 않고 시물라크르들을 반복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본래 시물라크르는 원본을 지시함으로써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며, 시물라크르의 반복, 즉 복제와 복제 사이의 차이에서 의미가 발생한다. 그 결과 복제에 대한 원본의 우월적 지위는 무너지고 회화는 현실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띠게 된다.

➡ 만약에 A.현실의 콜라병[→ 원본]이 있고, 캔버스 안에는 B.이에 대한 시각적 재현인 콜라병[→ 원본의 복제본]이 있다고 하자. 이때 B의 옆에 이를 복제한, 즉 복제의 복제본인 C.『하나의 시물라크르』가 있다고 하자. 이때의 C는 여전히 A를 환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 만약에 C가 캔버스에 수백 개 나열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조금씩 다르다면, 우리는 더 이상 C를 보면서 원본인 A로서의 콜라병을 떠올리지 않게 된다. 대신 수많은 C들 간의 차이점에 주목하게 된다. 비로소 원본의 지위가 무너지게 되고, 회화는 현실의 원본을 재현해야 한다는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 생각을 하면서 2)의 작품을 다시 한번 감상해 보자.

❗ **주목** 재현을 배제한 모더니즘 회화는 자율성을 띠는 데 실패한 반면에[문단1~4], 재현을 인정한 포스트모더니즘 회화는 오히려 자율성을 띠는 데 성공한다는 설명에도 주목하자.

(나)문단 4 과잉 의미 상태와 시물라크르 회화

1) 보드리야르는 시물라크르의 반복이 의미의 비결정성을 낳는다고 지적하였다. 시물라크르들의 반복으로 인해 차이의 생산도 극에 달하여 **「과잉 의미 상태」**가 되는데, 과잉 의미 상태는 무의미 상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너무 많으면 뭘 먹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워진다. 의미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시물라크르들이 존재하는 '과잉 의미 상태'의 회화는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무의미 상태와 같다는 게 보드리야르의 관점이다.

➡ 이는 시물라크르에 의해 점령된 '과잉 현실'과도 유사한 상태로 볼 수 있겠대[가]의 문단4~2]

2) 그는 이것이 대중 매체를 통해 과잉 공급된 정보가 대중을 침묵하게 하는 현상과 닮았으며, 시물라크르 회화는 이러한 현대 사회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춘다고 주장하였다.

➡ 대중 매체를 통해 뉴스가 범람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정보가 팩트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대중은 어떤 정보도 믿지 못해 침묵하게 된다. 이 역시 일종의 무의미 상태에 해당한다.

➡ 즉 앤디 워홀 등의 시물라크르 회화는 이러한 현대 사회의 암울한 모습을 잘 반영한다. 지문 (가)와 (나)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마무리다.

[21~25] 고전시가

(나) 「속사미인곡」 이진유

지문 평가

「속사미인곡」, 즉 사미인곡의 속편이라는 뜻의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사미인곡」처럼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여성 화자를 내세워 작가의 소회를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유배지로 가는 험난한 여정이나 유배지에서의 비참한 생활을 나타낸 부분 등에서는 여성 화자를 통하지 않고 작가가 자신의 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삼 년(三年)을 님을 켜나 해도(海島)에 와 지내니

➡ 화자는 자신이 삼 년을 임과 헤어져 있으며 섬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화자는 임과 헤어져 있는 여인이다.

❗ **참고** 남해의 외딴섬인 추라도에서 유배 생활을 3년째 하고 있는 작가의 처지가 여성 화자의 처지에 반영되어 있다.

내 언제 무심(無心)히여 님에게 득죄(得罪)훈가

→ 내 언제[임에게] 무심히 대하여 임에게 죄를 지었는가

님이 언제 박정(薄情)히여 날 대접(待接) 멀리훈가

→ 임이 언제[내게] 박정하여 날 멀리하였는가

➡ 자신이 임에게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고, 임 또한 화자를 멀리한 적이 없다고 한다. 즉 헤어져 지낼 이유가 없다는 거다.

내 얼굴 고왔던지 질투할손 중녀(衆女, 많은 여자)로다

→ 내 모습 고왔던지, 질투한 이는 못 여인이로다.

그옥한 이내 몸을 음란하다 이르도다

→ 행실 바른 이내 몸을 음란하다고 말하는도다.

➡ 많은 여자들이 화자를 질투하여, 음란하다고 모함을 했다는 거다. '중녀'의 모함임, 임과 화자가 떨어져 지내게 된 이유와 관련되어 있겠다. 모습이 곱다는 것이나 못 여인으로부터 질투와 모함을 받았다는 것에서, 임과 헤어져 있는 여인을 화자로 설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하(西河, 청나라의 수도인 북경)에 사행(使行, 사신 행차) 가서 수레 타고 도라오니

봉황성(鳳凰城, 압록강 하류의 중국 땅에 있는 성) 다다라서 고국 소식 놀라워라〉

➡ 〈 〉 부분은 여성 화자의 처지로 볼 수 없는 내용, 즉 청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작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참고** 작가가 청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는 사이에 조정의 정치 상황이 급변하여, 그가 국경을 넘기 전에 이미 그의 유배가 결정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부분이다.

황혼에 옛 기약(期約)을 다시 거의 좇을너니

→ 황혼에 옛 기약을 다시 거의 찾을까 싶었더니

참언(讒言, 거짓으로 꾸며서 님을 헐뜯어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침)이 망극(罔極)히니 님이신들 어이홀고

→ 헐뜯는 말이 망극하니 임이신들 어찌할까

➡ 화자를 헐뜯는 말을 하도 많은 사람들이 하니, 임도 다르게 대처하기가 어려웠 것이라는 말이다.

시호(市虎)도 성의(成疑)하고 증모(曾母)는 투저(投杼)히되

→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말로 의심을 만들어 내고, 증자의 어머니는 베 짜던 복을 던졌으나

➡ '시호 성의(市虎成疑)'는 '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이 짜면 거짓거리에

범이 나왔다든 거짓말도 꾸밀 수 있다는 뜻'의 고사를 달리 표현한 말이다. '중모 투저'는 증자(曾子)의 어머니가,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람들의 말을 두 번까지는 믿지 않고 태연히 베를 짜고 있었지만,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 같은 말을 전하자 결국엔 그 이야기를 믿고서 놀라고 두려워 베 짜던 북을 내 던지고 담을 넘어 도망쳤다는 고사를 가리킨다. 두 고사 모두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하자 믿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우리 님 날 믿기야 세상의 뉘 비할까

→ 우리 임 날 믿기야 세상의 누구와 비할까

➡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참언'을 해도, 임은 끝내 화자를 믿어 줄 것이라는 의미이다.

중산 방서(中山謗書)를 궤 속에 꺾듯 두고

→ 중산[을 치러 간 장수]를 비방하는 글을 궤 속에 가둠

➡ '중산 방서'의 고사는, 타국을 원정하러 간 장수를 비방하는 상소를 술하게 받은 임금이 이를 상자 속에 처박아 두고 끝까지 그 장수를 신임한 일을 가리킨다.

[참고] 전국 시대 위(魏)나라 문후(文侯)가 중산(中山)을 공격하러 간 장수 악양(樂羊)을 비방하는 많은 글을 받고서도 상자에 넣어 두기만 할 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악양이 공격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함정에서 건져 내어 선지(善地, 지내기 좋은 지역)[→ 참고로 작가의 첫 유배지인 전라남도 나주를 가리킨다.]에 유배하네

➡ 화자는 임금이 자신을 유배 보낸 것에 대해, '중산 방서'의 고사처럼 임이 자신을 믿어 주고 있으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함정에서 건져 내기' 위한 배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중략)

천지간(天地間) 홀로 서서 사방(四方)을 둘러보니

➡ 화자는 하늘과 땅 사이, 아득하고 광막한 공간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심정을 드러낸다.

우리 님 아니시면 놀을 다시 의지할까

→ 우리 임 아니시면 누구를 다시 의지할까

➡ 임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는 뜻인데, 설의법을 활용해 이를 강조하고 있다.

시운(時運, 시대나 그때의 운수)이 불행(不幸)하야 천 리(千里)에 켜났으니

→ 시절의 운수가 불행하여 천 리 밖으로 떠났으니

➡ 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때를 잘못 만난 탓으로 돌리고 있다.

내 신세 고혈(孤子,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 외로움)한 줄 님이 모르실까

→ 내 신세 외로운 줄 임이 모르실까

➡ '님이 [설마] 모르실까'라는 설의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님이 [아실까] 모르실까'라는 단순한 의문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후의 문맥을 고려하면 전자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겠다.

긴 소매 들고 안자 지난 잘못 해아리니

우직(愚直, 어리석고 고지식함)하기 본성이요 망령(妄靈, 늑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남)되도 내 죄(罪)오나

➡ 자신이 본성대로 우직하게 처신했다고 하면서, 좀 심하게 행동하기는 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근본을 생각하니 님 위한 정성일식

→ 근본을 생각하니 임 위한 정성일세

➡ 화자는 자신의 '지난 잘못'을 해아린다면, 그것이 '근본'에 있어서는 '님 위한 정성'이었다고 주장한다.

일월(日月) 꺾듯 우리 님이 거의 아니 살피실까

→ 해와 달 같은 우리 임이 [그런 점을] 거의 아니 살피실까

➡ 해와 달처럼 밝은 지혜를 가진 임이 그런 자신의 진심을 살피지 않을 리가 없다는, 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살려 주신 이 은혜를 결초보은(結草報恩) 기약하나

→ 살려 주신 이 은혜를 보답하기 기약하나

상자에 든 추풍선(秋風扇, 가을철 부채라는 뜻으로, 철이 지나 쓸모없어진 물건을 빔태어 이르는 말)이 어느 날 다시 나올고

➡ '추풍선'은 흔히 버림받은 여인에 대한 비유로 쓰인다.

첫새벽에 혼자 누워 백두음(白頭吟)을 슬피 읊고

➡ 화자는 자신의 슬픔을 '백두음'에 의탁해 드러내고 있다.

[참고] '백두음'은 중국 한나라 때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아내 탁문군(卓文君)이, 첩을 맞으려는 남편에게 결별의 뜻을 나타내며 버림받은 여인의 슬픔을 토로한 노래이다. 이 노래를 듣고 사마상여는 결국 첩 들이기를 포기했다 한다.

황금(黃金)을 못 얻으니 장문부(長門賦)를 어이 사리

➡ 자신은 '황금'이 없어서 '장문부'를 살 수 없다는 한탄이다.

[참고] '장문부'는 중국 한나라 때 사마상여가, 황제의 총애를 잃고 버림받은 처지가 된 진(陳) 황후를 위해 지은 노래이다. 황후는 사마상여가 글을 잘 짓는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황금 백 근을 주고 술자리를 베풀며 버림받은 슬픔과 근심을 토로하였는데, 이를 들은 사마상여가 '장문부'를 지었고, 이 노래를 들은 황제는 다시 황후를 총애했다 한다.

지하(芰荷, 마름과 연잎)로 옷을 짓고 부용(芙蓉, 연꽃)으로 치마 지어 상자에 두었은들 놀 위하야 단장(丹粧)할고

→ 상자에 [옷과 치마를] 두었지만 누굴 위하여 단장할까

➡ 임이 온다면 손수 지은 옷과 치마를 입고 임을 위해 단장을 하겠지만, 임과 헤어진 지금은 단장할 이유가 없다. 임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며 임을 그리는 모습이다.

+ 참고 자료

● 이해와 감상

1 작가가 경종의 서거를 알리는 사신으로 청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라도 나주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추자도(楸子島)로 옮겨져 지내던 중, 유배 생활 3년(1725~1727)의 체험과 회포를 읊은 유배 가사이다.

2 숙종 말기에서 영조 초기에 이르는 시기에는 경종의 세자 책봉과 즉위, 그 동생 영조의 왕세제 책봉 등을 둘러싸고 경종을 지지한 소론과 영조를 지지한 노론 사이에 격심한 다툼이 있었다. 그 결과 경종 때에는 노론이 큰 피해를 입었고, 영조 즉위 후에는 소론이 큰 피해를 입었다. 작가 이진유는 경종 때에 소론의 중심인물로서 노론 숙청에 앞장섰었고, 영조 즉위 후에 노론에게 탄핵을 받아 유배에 처해졌다가 서울에 압송되어 문초를 받던 중에 죽었다.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지문 평가

개념어의 밀도는 매우 낮은 편이지만, 분석 철학답게 내용의 밀도는 상당히 높다. 두 관점을 비교하되 각 관점의 설명이 어떤 논리를 근거로 성립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인문 - 분석 철학 - 직설법적 조건문, 가정 이론

직설법적 조건문, 프레게, 질료적 함언 해석, 가정 이론, 조건 논리

문단 1 직설법적 조건문과 질료적 함언 해석

1) “오늘 비가 온다면 운동회는 취소된다.”와 같이 단순한 가정에 기초한 믿음을 표현한 문장을 ‘**직설법적 조건문**’이라 한다.

▶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개념이 던져지고 있다. 일단 주어진 예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관건이겠다. “오늘 비가 온다.”라는 단순한 가정에 기초하여 “운동회는 취소된다.”라는 사건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문장이 곧 ‘직설법적 조건문’이다.

2) 임의의 문장 A, B가 있을 때, “만약 A이면 B이다.”, 즉 “만약 A가 참이면 B가 참이다.”라는 직설법적 조건문 S1이 있다고 하자. **(프레게)**는 S1은 A와 B의 참, 거짓에 대한 네 가지 가능한 조합 중 전건인 A가 참이고 후건인 B가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고, 다른 경우들은 모두 참이라고 보았다.

▶ ‘프레게’에 따르면 직설법적 조건문은 ‘A가 참인데, B가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 된다. 즉 오늘 비가 실제로 왔는데, 운동회가 취소되지 않았을 때에만 “오늘 비가 온다면 운동회는 취소된다.”라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거짓이 된다는 얘기다.

▶ ‘직설법적 조건문’ 전건과 후건에 따른 S1의 참, 거짓을 다루는 진리표는 다음과 같다.

A	B	S1
참	참	참
참	거짓	거짓
거짓	참	참
거짓	거짓	참

3) **질료적 함언 해석**이라 일컬어지는 이러한 해석은 대부분의 논리학 교과서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반박도 존재한다.

▶ ‘질료적 함언 해석’에 대한, 즉 2)의 S1의 참, 거짓 해석에 대한 반박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문단 2 질료적 함언 해석의 근거

1) 대부분의 논리학자들은 우리가 “A가 참이면서 B가 거짓인 것은 아니다.”라는 문장 S2로부터 S1을 직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사실

을 질료적 함언 해석의 근거로 삼는다.

▶ 쉽게 말해서, “A가 참이면서 B가 거짓인 것은 아니다.”를 통해 S1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A가 참이면서 B가 거짓일 때에만 S1이 거짓이 된다는 설명이다. 대강 느낌은 온다.

2) 예컨대 “네가 이 버섯을 먹는다.”라는 문장을 A라 하고, “네가 죽는다.”라는 문장을 B라 하자. 우리는 “네가 이 버섯을 먹고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는 문장으로부터 “네가 이 버섯을 먹는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라는 문장을 바로 추론할 수 있다.

▶ 차근차근 따라가자. “네가 이 버섯을 먹고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네가 이 버섯을 먹을 것이다.”와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가 함께 참일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네가 이 버섯을 먹게 되면 너는 죽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 이를 일반화하면 결국에는 “A가 참이면서 B가 거짓인 것은 아니다.”라는 문장으로부터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문장이 추론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마찬가지로 “A가 참이다.”와 “B가 거짓이다.”가 함께 참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이를 통해 1)을 설명하게 된다.

3) 그들은 이렇게 직접적인 추론이 가능한 것은 이 추론의 전제와 결론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즉 S2와 S1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여긴다. S2는 A가 참이고 B가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문장이므로 S1 역시 A가 참이고 B가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인 것이다.

▶ ‘질료적 함언 해석’에 따르면 S2로부터 S1이 바로 추론된다는 것은 S2와 S1이 동일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S2로부터 ‘직설법적 조건문’ S1을 직접 추론할 수 있다.



이는 S2와 S1이 동일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S2는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다.



∴ S1도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다.

4) 한편 S1은 “A가 거짓이거나 B가 참이다.”라는 문장과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 S1은 “A가 참이면서 B가 거짓인 것은 아니다.”라는 문장과도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 “A가 거짓이거나 B가 참이다.”라는 문장[→ 편의상 S5라 하자.]과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 먼저 A가 거짓이면 S5는 항상 참이다. 즉, 아래 S5의 진리표에 셋째, 넷째 행의 경우에 S5가 참이다. 또한 B가 참이면 S5는 항상 참이다. 즉, 아래 진리표에 첫째, 셋째 행의 경우에 S5는 참이다. 결국 S5는 A가 참이고 B가 거짓인 둘째 행의 경우에만 거짓이고 다른 경우엔 참인 셈이다.

A	B	S5
참	참	참
참	거짓	거짓
거짓	참	참
거짓	거짓	참

▶ 익숙하지 않느냐고? 맞다. 문단1-2)에서 정리한 S1의 진리표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S1과 S5는 동일한 문장이 된다.

❗ **주목** 현장에서는 도무지 이렇게 읽어 내지 못하겠다고? 정상이다. 이 정도까지 파고드는 것은 현장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현장에서는 ‘S1=S2=S5’라는 결론만 챙겼어도 무방하다.

문단 3 질료적 함언 해석에 대한 반박

1) 하지만 S1의 전건인 A에 대해 매우 낮은 신뢰를 갖는 경우에는 질료적 함언 해석이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❶ 맥락 짚기 드디어 본격적으로 문단1-3)에 언급된 '질료적 함언 해석'에 대한 반박이 등장하려나 보다. 조금 세게 말하면, 지금까지 '질료적 함언 해석'의 근거를 열심히 읽은 것도, 다 지금부터의 반박을 위함이다.

2) 가령 내가 K에게 연락할 일이 생길 거라고 거의 믿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나는 "만약 K에게 연락할 일이 생기면, 나는 K에게 전화할 것이다."라는 문장 S3을 합리적으로 주장하겠지만, "만약 K에게 연락할 일이 생기면, 나는 텔레파시를 통해 K와 연락할 것이다."라는 문장 S4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 상식적인 얘기다.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건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S3을 주장할 테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S4를 주장하지는 않을 테다.

3) 그러나 질료적 함언 해석에 따르면 이 두 직설법적 조건문이 공통으로 갖는 전건에 대하여 나는 상당히 낮은 신뢰를 갖고 있으므로, 두 조건문 모두를 상당히 신뢰해야 한다. 결국 두 조건문 중 하나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질료적 함언 해석에 따르면 전건이 거짓인 경우 조건문은 항상 참이기 때문이다.

❶ 주목 여기서 '상당히 낮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거짓인 것'과 대응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 만약에 전건에 해당하는 "K에게 연락할 일이 생겼다."가 실현 가능성이 높아서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면, 전건은 참이 되어 후건이 참일 경우에만 그 조건문은 참이 될 거다.

➡ 그러나 전건이 거짓일 경우에는 후건의 진리값과 무관하게 그 조건문이 항상 참이 되기 때문에[→ 질료적 함언 해석에 따르면 직설법적 조건문은 '전건이 거짓이거나 후건이 참이다.'와 같다. 즉 '전건이 거짓이면 후건이 참이든, 거짓이든 그 조건문은 참이 된다.], 우리는 상식으로는 참이라고 할 수 없는 S4 까지도 참으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문단 4 가정 이론

1) 이와 같은 반례들을 토대로 질료적 함언 해석을 거부하는 애덤스의 **가정 이론**에 따르면 S1은 질료적 함언 해석의 주장처럼 이 문장이 참이 될 객관적 진리 조건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 한마디로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직설법적 조건문 S1은 "A가 거짓이거나 B가 참일 때 S1은 참이 된다."를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2) S1은 전건인 A의 참에 대하여 의심을 갖고 있는 화자가 이미 갖고 있는 지식들에 A를 지식으로 가정하여 보탠 것에 기초하여, 후건인 B를 상당한 정도로 믿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 말이 상당히 어려우니 차근차근 이해해 보자. S1을 '질료적 함언 해석'에서는 객관적 진리 조건의 표현이라고 보았으나 '가정 이론'에서는 믿음의 정도의 표현이라고 봤다. 즉……

➡ "A이면 B이다."라는 문장은 A가 참일지 모르겠으나, 이를 지식으로 간주하여, 즉 A가 참일 것이라고 간주하였을 때, 이때 B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표현한 것이다.

3) 그에 따르면 S1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A가 참인 경우에 B가 참일 조건부 확률인 $P(B|A)$ 이다. 여기서 $P(B|A)$ 는 A도 참이고 B도 참일 확률을 A가 참일 확률로 나눈 것과 같다.

➡ 가정 이론의 해석에 따르면 그럴겠다. A를 참으로 가정하였을 때 B가 참이 되는 믿음의 정도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 이론'에 따른 S1에 대한 믿음의 정도>

$$P(B|A) = \frac{P(B \cap A)}{P(A)}$$

4) 가정 이론에 의해 S1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간주되는 확률은 질료적 함언 해석에 의한 확률과 다르기 마련이다. 가령 정상적인 주사위를 던지는 상황에서 "만약 주사위의 윗면이 짝수 눈으로 나오면, 그것은 6이다."와 관련하여 가정 이론에 의한 믿음의 정도는 1/3이다.

➡ "주사위의 윗면이 짝수이다."가 전건 A이고 "주사위의 눈이 60이다."가 후건 B인 직설법적 조건문을 생각하면 되겠다. 가정 이론에 따르면 이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가정 이론'에 따른 S1에 대한 믿음의 정도>

$$\frac{P(\text{주사위의 윗면이 짝수이면서 그것이 60이다})}{P(\text{주사위의 윗면이 짝수이다})} = \frac{1/6}{1/2} = \frac{1}{3}$$

5) 이와 달리 질료적 함언 해석에 따르면 이 조건문은 "A가 거짓이거나 B가 참이다."와 같은 형식의 문장, 즉 "주사위의 윗면이 홀수 눈이거나 그것은 6이다."와 동일한 의미이다.

➡ 맞다. 문단2-4)에서 살핀 지점이다. 즉 이 조건문은 A가 참이면서 B가 거짓인 경우에만, 즉 주사위의 윗면이 짝수이면서 그것이 60이 아닐 때에만[→ 주사위의 눈이 2, 4일 때에만] 거짓이 된다.

6) 홀수 눈이 나오거나[→ 1, 3, 5] 6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4이므로 질료적 함언 해석에 의한 믿음의 정도는 2/3이다.

➡ 당연한 결론이다.

문단 5 조건 논리

1) 가정 이론의 해석에 기초한 논리인 **조건 논리**에 따르면 전제가 하나인 추론은 결론이 참일 확률이 전제가 참일 확률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리적인 추론으로 간주된다.

➡ 헛갈리기 쉬우니 잘 정리해 두자.

<조건 논리'에 따른 합리적인 추론의 조건>

결론이 참일 확률 ≥ 전제가 참일 확률

2)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일상에 관한 문장에 적용되어 온 많은 전통적인 추론 규칙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결론이 참일 확률이 전제가 참일 확률보다 작은 것으로 드러난다.].

➡ 이렇게 '가정 이론'에 의해 '질료적 함언 해석'이 반박됨에 따라, 기존의 추론 규칙들 역시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다.